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5. 7

2nd Week

목 차

■ 본문

1. W3C MathML 3.0, ISO/IEC 국제표준으로 인정
2. CCSA, 모바일인터넷+ 표준화 정식 시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W3C MathML 3.0, ISO/IEC 국제표준으로 인정

(W3C MathML 3.0 Approved as ISO/IEC International Standard)

보도날짜 2015.06.23

출 처 W3C

사 이 트 <http://www.w3.org/2015/06/mathmlpas.html.en>

-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는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와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정보기술 분야 위원회인 JTC1 (Joint Technical Committee, 합동기술위원회)과 함께 두 번째 호인 MathML 버전 3.0을 ISO/IEC 국제표준 (ISO/IEC 40314:2015)으로 승인했음을 발표함
- MathML은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마크업(mark-up)¹⁾ 언어이자, 웹 상 수학을 표현하는 통계, 공학, 과학, 전산, 학문적 개발도구임
 - 수학적 마크업 언어는 XML²⁾ 내의 공식(수학 기호, 빌트업(built-up) 수식, 폰트스타일)과 그 의미(수학의 다양한 영역 참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함
 - 첫 번째 버전인 MathML 1은 1999년에 발표된 바 있음
- W3C의 CEO 제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배포 중인 이 중요한 과학적 표준은, ISO와 IEC 및 국가 회원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ISO/IEC의 인정으로 표준 단체, 정부, 과학 및 학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브라우저 업체, 교육 출판사, 폭 넓은 웹 커뮤니티 등이 MathML을 채택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마크업 언어: 태그 등을 이용하여 문서나 데이터의 구조를 명기하는 언어의 한 가지. 태그는 원래 텍스트와는 별도로 원고의 교정부호와 주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용도가 점차 확장되어 문서의 구조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태그 방법의 체계를 마크업 언어라 함.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기술하는 정도로만 사용되기에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구별됨 [출처: 위키백과]

2) XML: W3C에서 다른 특수 목적의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용도에서 권장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 주로 다른 시스템,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HTML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만들어 [출처: 위키백과]

- MathML을 만드는데 HTML에서 요구되는 주요 목표는, 서로 상호적으로 과학 논문이나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것임
- 더 이상 공식은 이미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브라우저나 문서뷰어에 있는 공식과 상호 작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식을 복사 붙여넣기하여 방정식 해법기(equation solver)에 넣어 공식을 풀고, 문서 안의 그래프 플로터*를 선택해 시각화하며, 학생들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연산 학습을 하도록 함

* 플로터: 데이터를 도면화하는 출력 장치

2. CCSA, 모바일인터넷+ 표준화 정식 시행

보도날짜 2015.06.26

출 처 CCSA

사 이 트 <http://www.ccsa.org.cn/worknews/content.php3?id=3120>

- 중국은 6월 26일, 통신표준화협회(CCSA) 모바일인터넷 응용 및 단말기술위원회(TC11)의 제 11차 회의에서 “모바일인터넷+자동차”, “모바일인터넷+금융”, “모바일인터넷+건강” 3개의 하위 작업반의 결정을 통과시켰음
 - 이는 “모바일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표준화작업의 새로운 특징으로, 현재 중국 국가 중점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임
 - 세 개의 하위 작업반은 일반(총체) 작업반(WG1), 서비스플랫폼 및 응용작업반(WG2), 단말기작업반(WG3)에 속함
- 현재, TC11은 “모바일인터넷+자동차”, “모바일인터넷+금융”, “모바일인터넷+건강” 관련 표준 연구를 시작했음
 - 세 영역 관련 표준화 작업의 강화를 위해 이전의 하위 작업반 체제는 기존 작업반 구조로 예측되고, 연합 프로젝트 형식에 관련된 영역의 기초적, 구조적 문제 연구를 시행. 상위 수준의 계획 설계를 통해 각각의 하위 작업반은 관련된 부분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
 - 각 작업반(WG)에 현존하는 “모바일인터넷+” 항목은 기존 작업반이 시행하고, 완벽한 작업 후 항목을 종합하여 하위 작업반이 대응할 것
- 회의가 완료된 후, 각 작업반 반장은 체계적 준비와 계획을 제시할 것임
 - 핵심(중심)연구팀을 조직하고, 하위 작업반 반장 및 부반장, 그리고 핵심회원을 결정한 후, 작업 계획을 제정하여 빠른 작업을 진행코자 함